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

석 문 주*

차 례

- I. 연구 목적
- II. 이론적 배경
 - 1. 다중지능이론과 음악교육
 - 2. 이해를 위한 교수(teaching for understanding)
-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 2. 다중지능이론을 반영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실천
 - 3. 연구방법
- IV. 다중지능이론을 활용한 음악수업에서의 효율성 분석
 - 1. 음악적 이해력의 발달
 - 2. 문제 해결력과 인지적인 전략의 발전
 - 3. 협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
 - 4. 자아확신과 음악적 잠재력의 발전
 - 5. 교사의 시각과 인식전환
- V. 결 론

I. 연구 목적

가드너(H. Gardner)는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이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최

*출강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0-041-I00060)
인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대한 신장시키면서 각 학생이 지닌 다양한 능력을 발굴, 계발하는 것이 참다운 인간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는 지능을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창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화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심리학적인 잠재력'(1999, 39쪽)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인간의 지능을 언어적 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논리-수학적 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공간적 지능(Spatial Intelligence), 신체-운동적 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음악적 지능(Musical Intelligence), 대인관계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개인이해 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연탐구 지능(Naturalist Intelligence)-8개 영역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지능들은 비교적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 영역의 지능이 높다고 해서 다른 영역의 지능이 높을 것으로 예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중지능의 영역중의 하나인 음악적 지능은 연주, 작곡, 애호, 비평과 관련된 능력으로 음악에 대한 이해와 분석적이고 기능적인 능력을 말한다. 다중지능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지능들간에는 물론 지능 내에서도 자신의 지능을 발현시키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고 한다. 이는 음악적 지능 내에서도 여러 영역의 지능을 발현시키는 방법이 다양함을 시사한다.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지능의 프로파일이 다르고, 그 발달의 양상도 개인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다중지능의 관점에서 개개인의 음악적 지능 프로파일을 최대한 이해하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지능을 조화시켜 음악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처한 문화에 맞게 적응시켜가면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음악적 경험을 보다 극대화하고 음악적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드너는 다중지능이론을 기초로 하여 '어떻게 학생들의 이해를 개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사는 학생들이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다중지능이론을 기초로 한 사고력의 향상 및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한 '이해를 위한 교수(teaching for understanding, 이하 TfU로 칭함)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지능이론을 기초로 한 TfU를 적용한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음악수업에 적용하여 그 결과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다중지능이론의 학교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수업을 받은 학생의 음악적 이해는 어떠한가?
2.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수업을 받은 학생의 음악적 변화는 어떠한가?
3.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수업에서 어떠한 학습문화가 생성되었는가?
4. 다중지능을 적용한 음악수업을 실시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5.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이 적용가능한가?

1) 가드너는 1983년에 출판한 '마음의 틀(Frams of Mind)'에서 7가지 지능을 제시하였다. 후에 자연 탐구지능(naturalist intelligence)을 새로운 지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다중지능이론과 음악교육

현시대에 인지주의자들의 관심은 학생들은 다른 방법으로 배우고, 기억하고, 실행하고, 이해한다는 것으로 그 관심이 바뀌어 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한 이론인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은 교육학자들에게 많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가드너는 인간은 여러 가지 '앎의 방법(ways of knowing)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1983, 11). 전통적인 관점에서 지능은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으로 평가되었고, 학교에서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는 기존의 지능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첫째, 지능을 사회 속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능력으로 보았고, 둘째, 풍부한 환경과 자연스런 상황에서 그 문화권이 가치를 두고 있는 산물¹⁾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Gardner, 2000), 그는 특히 지능을 IQ점수라는 단일한 척도로 보려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능이 선다형 또는 단답형과 같은 유형의 표준화된 필답고사에 의해 측정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가 지능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능의 다원성이다. 일반적으로 개인마다 지능의 프로파일이 다르고, 그 발달의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여러 가지 지능을 조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처한 문화에 맞게 적응시켜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다중지능이론은 교사의 교수기술, 도구, 전략 등을 넓히기 위하여 연구되었다(프로젝트 스펙트럼, 1989; Key School Project, 1990; Arts Propel, 1992; New City School, 1997; Armstrong, 1994, 1999; Campbell, 1994, 1999; Nicholson-Nelson, 1998). Project Zero의 한 연구인 음악과 관련된 Arts Propel연구²⁾는 연주나 작곡과 같은 음악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평가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을 지었다. 학생의 발달과 성장은 매우 복잡하고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포트폴리오를 통한 평가를 하였으며, 학생 자신의 평가와 비판적 사고능력의 계발에 초점을 맞춘 질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활동영역, 학생의 작품에 대한 과정의 역사, 다양

1) 여기서 말하는 산물이란 어떤 문화권에서 소중히 여기는 상품, 물건, 제도, 용역(service)등을 다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자동차나 집을 설계하는 능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나 회사의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능력,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는 능력도 지능이다.

2) Arts Propel의 PROPEL은 Production(작품), Perception(인지), Reflection(반성)의 약어로 예술 학습에서 3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Production)은 예술작품을 실제로 만들고, 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Perception)는 음악작품을 위하여 필요한 음악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성(Reflection)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적 판단을 하고 개인의 작품을 비평하여 반성하는 것이다. 이 세 요소는 서로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되어 음악학습의 여러 부분을 둘러싸고 있다.

한 작품에 대한 모음(음악레퍼토리), 전이의 효과, 성취를 위한 수업자료를 선정하여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다.

다중지능이론이 음악수업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은 많은 다른 방법으로 지식을 사용하고, 배우고, 보여주기 때문에 가드너는 효율적인 학습은 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교육에서 다중지능이론의 적용은 교사들에게 새로운 시각 전환을 가지게 된다. 전통적인 음악수업의 교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이론을 칠판에 판서하고 강의를 한다. 그러나, 다중지능의 음악수업에서 교사는 음악적 방식으로부터, 언어적, 공간적, 대인 관계적, 논리 수학적 방식 등으로 끊임없이 바뀌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지능을 포함한다. 학생들이 음악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며 실제로 행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호작용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고, 학생 자신의 학습속도와 흥미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느낌을 학습과제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한다. 다중지능이론은 훌륭한 교사들이 지금까지 학생을 지도해 왔던 내용이나 방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이론은 모든 음악 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학생들에게 실행할 수 있는 최상의 교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고 또 그 방법들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 이해하게 해준다. 또한 그것은 교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수방법, 자료 및 기법을 더욱 확장하고 심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음악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이해를 위한 교수(teaching for understanding)

가드너와 퍼킨스는 ‘이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학생들의 이해를 개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사는 학생들이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에 관심을 갖고 사고력의 향상 및 교수 학습의 개선을 위한 ‘이해를 위한 교수(TFU)’를 개발하였다. ‘이해를 위한 교수’ 프로젝트는 학생의 이해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추구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의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

- 첫째, 핵심적 원리를 포함한 생성적 주제에 관련된 풍부하고 적절한 학습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 둘째, 수행활동을 통해 학습목적과 교수방법을 조화시켜야 한다.
 - 셋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 넷째, 실제 생활과 연계된 학습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다섯째,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를 통한 지속적인 평가를 필요로 한다.
- 이를 바탕으로 ‘이해를 위한 교수’는 다음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Blythe & Associates,

1998).

1) 생성적 주제(generative topics)

‘생성적 주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리나 영역(domain)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제를 뜻한다.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경험과 연계된 아이디어 웹(web)을 작성한다. 즉, 생성적 주제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이해를 돕기에 충분한 심도, 중요성, 연계성, 다양함을 제공해 주는 ‘주제’ ‘이슈’ ‘테마’ ‘개념’ ‘아이디어’등을 말한다. 잘 선정된 주제는 많은 핵심 영역이나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흥미를 제공해 주며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도 쉽다. 본 연구의 주제 선정을 위하여 ‘음악시간에 하고 싶은 것’, ‘음악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웹을 만들게 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모둠활동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작은 음악회’, ‘음악과 춤’, ‘대조’, ‘이야기와 음악’, ‘aba형식’이 본 연구의 주제로 설정되었다.

2) 이해를 위한 목적(understanding goals)

‘이해를 위한 목적’은 수업의 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해야 하는 개념, 과정, 기법이 이해를 위한 목적이다. 이 목적은 생성적 주제의 맥락 하에서 특정기간동안 학생들이 이해해야 하는 개념, 과정, 기법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술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수업을 통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목적으로 진술되었다. 예를 들면 ‘음악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노래할 것이다’, ‘음악과 삶의 관련성을 이해할 것이다’, ‘음악에 따라 다양한 춤이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음악형식을 이해하여 자신의 음악을 만들 것이다’ 기호에서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새로운 음악기호를 개발하고 표현할 것이다’등이 본 연구에서 설정되었다.

3) 이해를 위한 수행(performances of understanding)

‘이해를 위한 수행’에서는 ‘이해를 위한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선정해야 한다. 활동 자체를 통해 학생이 이해한 내용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자신의 지식을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확장시키고 추론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재정립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음악하기’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음악적 경험과 과제를 연관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협동학습을 활용하여 학생들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논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또, 학생 자신의 학습속도와 흥미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고 스스로 학습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을 제공하였다.

4) 계속적인 평가(ongoing assessment)

‘계속적인 평가’는 수업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반성의 기회를 말한다. 평가 준거는 과제수행초기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수업 목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평가는 수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평가는 학생들이 과거에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다음에 발전할 방향에 대한 정보와 수업활동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평가는 음악활동을 위한 ‘학습지’, ‘일지’, ‘연주 계획서’, ‘음악 녹음 자료’, ‘비디오 자료’, ‘자기반성을 위한 자기 평가지’, ‘동료에 대한 상호평가지’등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0년-2001년까지의 다중지능이론을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개발된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로 이루어졌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연구결과 산출을 위하여 사전 연구나 추후 연구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2개교를(A교, B교) 2001년에 실험학교로 선정하였으며 한 학교에 한 학급씩 총 80여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A교는 5학년 학생들로 음악에 관심은 있으나 방과후에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몇몇 있을 뿐이었으며, B교는 4학년 학생들로 방과 후나 학교에서 악기를 배우는 학생이 많은 집단으로 음악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 적용 연구에는 처음에 세 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교사가 2002년 2월에 연구를 진행할 수 없어서 두 명의 교사 수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A교사(A학교교사)는 7년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로서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집필, 음악과 포트폴리오

평가, 멀티미디어 활용 등의 연구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실천하는 교사였다. B교사(B학교교사) 25여년간의 경력을 가진 교사로서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집필, 현장 연구, 우수 교사 연구 등을 하여 음악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청, 연수원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교사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통적인 음악수업 방법에 익숙해 있는 교사를 위하여 다중지능이론에 대한 연구를 연구자가 2000년에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은 7명의 음악에 관심있는 교사와 박사과정의 2명의 연구보조원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참여하였다. 2001년 6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새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2001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명의 교사가 수업을 실행하였다. 연구자가 매 수업을 관찰하고 참여교사와 지속적인 논의를 하며 실행하는 교육과정을 수정해 나가면서 수업을 실시하였다. 현장연구의 실행 후에는 연구결과에 따른 자료를 2002년 3월부터 분석하였다.

2. 다중지능이론을 반영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실천

1)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가드너(1991)는 학교학습이 더욱 '삶'의 학습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있어 음악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여 개발하였다.

첫째, 실제 삶과 관련된 음악 학습과정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가 문제 해결상황에 참여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의 음악학습이 학교 밖에서의 삶과 더욱 가까워진다면 학습 상황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둘째, 학습상황은 본질적으로 총체적이 되도록 하였으며, 총체적인 문제해결 경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들의 상황에서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셋째, 음악과 직접적으로 상호관계를 갖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참여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서 독립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음악 수업에서 사고와 문제해결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배운 것을 어떻게 아는가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원래의 아이디어를 시작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고, 교사와 동료와 그들의 아이디어를 나누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습자는 혼자, 혹은 동료와, 혹은 교사와 함께 작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전체 수업에서의 학생과 학생의 논의로부터 작은 모둠, 개인적 작업에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문제해결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교사는 관찰하면서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위의 개발 방향에 따라 다중지능이론을 기초로 한 TFU를 적용하여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한 주제의 총괄적인 수업 내용을 제시하고, 각 차시별에 따라 생성적 주제, 이해를 위한 목적, 이해를 위한 수행, 평가, 활용되는 유형별 다중지능을 제시하였다. 다음 예(표 1, 표 2)는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작은 음악회'라는 수업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2) 음악과 교육과정의 실행

본 연구를 위한 생성적 주제는 '음악시간에 하고 싶은 것'과 '음악 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하였다(표 3참조). 주제를 중심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발달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학생중심, 활동중심, 통합중심, 협동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하였다.

〈표 3〉 생성적 주제

A학교(5학년)	B학교(4학년)
작은 음악회	이야기와 음악
음악과 춤	aba형식
음악의 대조	음악의 대조

A학교의 5학년은 3개의 각각 다른 주제를 설정하였다. 가창 활동과 관련된 '작은 음악회', 감상활동과 관련된 '음악과 춤', 창작과 관련된 '대조'라는 과제를 설정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주제를 학생들의 생각에서 끌어냄으로써 음악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하게 되었다. 각 주제에 따라 4-10차시 수업을 하였으며 2시간 연속으로 수업을 하였다. B학교의 4학년은 창작 활동을 하나의 주제로 설정하고 3가지 과제를 선정하였다. 각 수행과제는 '이야기와 음악', 'aba형식 음악', '그림악보와 다양한 음원의 소리, 악기, 목소리를 활용한 aba형식 만들기(대조)'를 하게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개발방향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특히, 수업에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교사는 1)학생을 관찰하면서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

며 2) 상(표 1)주제: '작은 음악회'

차 시	'작은 음악회' 주제 내용
1	• 열린 음악회와 성악 발표회 비디오 감상하기 • 음악회에 가 본 경험 이야기하기 • 음악가들이 음악회를 열 때 어떤 과정을 하여야 하는 가를 생각해보기 • 음악회를 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기
2	• 학습한 악곡을 부르며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음악적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기: 음악적 개념, 연주 형태, 악곡의 분위기 등 • 모듬 구성하기 • 모듬별로 음악회에서 연주할 곡 선정하고 연주형태 결정하기
3	• 모듬별로 정해진 연주곡을 분석하고(박자, 음정, 화음, 리듬, 셈여림, 빠르기, 분위기 등) 연습하기 • 연주의 평가기준 정하기 • 연습일지 작성하기 • 서로 잘 안 되는 부분을 고쳐주며 연습하기(짝점검, 모듬별)
4	• 모듬별로 연습한 것을 발표하고 상호평가하기(나아진 점, 부족한 점, 앞으로 노력하여야 할 점 등) • 모듬별로 상호평가하기
5	• 음악회 준비하기 : 팜플렛, 초대장, 무대 배경, 무대 의상 등 음악회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준비하기 • 여러 가지 음악회 팜프렛을 보고 토의하여 '작은 음악회'의 팜프렛 구성하기 • '작은 음악회'의 시나리오 작성하기 • 4차시의 모듬별 연주 비디오보고 평가하고 연습하기
6	• 리허설 하기: 비디오 카메라 촬영 • 리허설 과정에서 부족하였던 점을 모듬별로 반성하고 토의하기
7	• 리허설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를 보고 잘 된 점, 고쳐야 할 점등을 토의, 분석하기 • 모듬별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연습하기
8	• '작은 음악회' 하기 • 음악회 비디오를 감상하고 느낀 점 써보기 • 느낀 점 발표하기

〈표 2〉 '작은 음악회' 수업안 예

이해를 위한 목적	1. 음악회에서 발표할 곡을 선정하고 음악적 요소를 파악할 것이다. 2. 음악적 요소를 표현하여 중창을 할 것이다. 3. 학생들은 생활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생성적 주제	작은 음악회	
이해와 수행의 연계성	이해를 위한 수행	수행 평가
수행의 소개	• 음악회에 가 본 경험 이야기하기 • 음악가들은 발표회를 가질 때 어떤 과정을 거칠까 토의하기	발표력 관찰 평가
수행 과정	• 음악회 기획하기(중창, 독창, 악기 연주) • 곡 선정하여 프로그램 짜고 팸플렛 만들기(곡의 분위기 고려) • 곡을 분석하고 음악적 표현 요소(박자, 음정, 화음, 리듬, 셈여림, 빠르기, 분위기 등) 찾아 연습하기(연습일지 작성) • 방과후 과제로 연습하고 녹음하여 오기 • 녹음한 것 듣고 잘 된 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 연습하기 • 무대장치, 무대 의상 꾸미기, 사회자 연습하기(모둠별로 분담하여 작업) • 리허설하기 • 리허설 과정 비디오보고 잘 된 점, 고쳐야 할 점등을 토의, 분석하고 연습하기	관찰 평가, 비디오 촬영, 자기 평가
수행 결과	• 음악회 열기 • 발표한 노래 분석하여 평가하기 • 음악회후의 느낀 점 쓰기	동료상호 평가
1. 언어적 지능	음악회에 가 본 경험 이야기하기, 토의하기, 음악회 감상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기	
2. 논리 수학적 지능	곡을 분석하여 음악적 요소를 파악하기 셈여림 표현하기	
3. 음악적 지능	음악적 표현 요소(빠르기, 음색, 화음, 박자 등)를 이해하여 음악에 나타내기, 노래부르기, 악기연주하기	
4. 신체 운동 감각적 지능	악기 연주하기	
5. 공간적 지능	무대 배경, 음악회 타이틀 작성하기, 무대 의상 만들기	
6. 대인관계지능	동료와의 작업과 논의를 통한 협동하기	
7. 개인적 지능	자기 반성 연습일지 작성하기, 문제 해결하기	

상호작용이 가능한 자료와 실물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3) 자신의 이해를 설명하기 전에,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 들어보도록 하였으며, 4) 탐구심을 갖도록 하는 질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5) 어떤 문제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사려깊게 다루고, 학생 스스로 자신이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하였으며, 6)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토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와 음악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와 계속 협의를 거치면서 매 수업에 대한 수업안과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다. 매 수업 실시 후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교사의 수업 내용과 운영, 학생의 반응, 과제수행의 방법, 모둠별 활동을 관찰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교사와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며 수업을 실행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은 내용분석, 참여관찰, 비디오촬영, 학생의 과제(창작품, 연주) 분석, 교사와의 심층 면담 등이었다. 즉, 실제 수업이 전개되는 교실에서의 연구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질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보조원 2명을 매 수업에 투입하여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지닌 경험과 변화를 기술하기 위하여 수업관찰, 학생들의 수행된 과제, 교사들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1) 내용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의 내용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연구의 의도에 접근하였다. 내용분석을 시도한 자료는 4학년과 5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발된 수업 시나리오, 학생의 작품(창작품, 연주 등), 계획서, 평가도구(루부릭,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지, 일지), 교사의 수업 일지 등이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내용분석의 수준이나 차원은 개략적 수준이었으며 현장교사와 연구원의 협조체제를 통해 진행되었다.

2) 수업관찰

관찰자의 역할면에서는 관찰자가 외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방관적 관찰'을 채택하였고, 관찰형식은 '공개적 관찰'이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자인 교사와 참가자인 학생들이 관찰자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찰목적에 대한 설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관찰자가 교사에게 관찰 목적과 더불어 그 준거에 대한 개괄적 언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마지

막으로 관찰의 초점은 개방된 형태의 광범위한 초점 형식을 취했다. 즉, 실제 수업시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라는 근본적이고 대략적인 질문을 토대로 관찰에 임했다.

본 연구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어서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매 수업을 관찰하며 수업이 전개되는 전반적인 활동과정을 기록하면서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반응을 관찰, 기록하였으며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수업 관찰 시에는 학생들의 음악과제의 실행, 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 학생의 반응, 교사의 수업진행, 협동학습에서의 학생들의 논의 및 조정, 전체 수업에서의 토의 등 전반적인 관찰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음악수업 개발 및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음악적 이해력, 문제해결능력, 음악에 대한 태도, 협동학습에서의 학생들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발표, 수업참여 등을 분석하였다.

3) 비디오 촬영

본 연구에서는 수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수업관찰과 함께 비디오 촬영이 이루어졌다. 비디오 촬영은 연구자와 교사의 상의를 통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매 수업마다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촬영된 내용은 참여관찰 및 수업내용 분석과정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

4) 면담

본 연구에서는 수업을 실시한 교사와 심층적 집단면담 형식을 실시하였다. 교사와의 면담 내용은 첫째,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둘째, 음악 수업을 실행하면서 느낀 점과 문제점등에 대하여 토의형식으로 면담을 하였다.

위의 네 가지 연구 방법적 접근이외에도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참고, 지속적인 현장교사에 의한 조언과 지적,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 작업, 반성적 주관성과 저널쓰기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IV. 다중지능이론을 활용한 음악수업에서의 효율성 분석

1. 음악적 이해력의 발달

학생들은 음악 과제를 수행하면서 음악적 이해와 음악적 기술에 대한 능력이 갖추어야 한다

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이 수업을 통하여 학습과정이 상호적이었으며 총체적인(holistic)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여 음악학습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1) 음악적 이해

A학교의 경우, ‘작은 음악회’를 할 때 음악회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음악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었다. 발표회를 위하여 악곡에 대한 음악분석 능력과 음악 발표회를 통하여 음악적 표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모듬별로 서로의 성부의 소리를 들으며 연주하였으며, 함께 연주할 때 요구되는 음악적 표현, 연주방법, 연주 태도, 연습과정에 대하여 논의를 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주할 노래에 대하여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지 의논을 해야될 것 같아. 노래의 분위기, 리듬, 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를 보고 어떻게 연습하며 노래를 부를지 결정하자”

“같이 노래할 때는 서로 리듬과 가락이 잘 맞아야 한다”

“화음이 불안하고 소리가 작았습니다. 연습방법을 다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

“화음과 태도, 얼굴 표정 등 ‘그네는 정말로 그네를 뛰는 기분을 알 것 같습니다’

“노래의 분위기에 맞게 않게 크고 씩씩하게 부르기 않았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고 화음이 잘 어우러지지 않았다. 리허설 때보다 실력발휘가 되지 않았다”

“발표회를 위한 준비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노래의 선정, 연습방법, 프로그램 만들기, 의상준비, 관객들의 태도 등에 대한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두 번째 과제인 ‘음악과 춤’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학생들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는 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생각하였다. 음악을 선정하고 그저 TV에서 보던 가요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음악을 듣고 단순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를 위하여 박자, 리듬, 가락, 화성, 형식 등 음악적 요소의 듣고 그 특징을 알아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그 음악을 정확히 알고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듬원 모두 음악을 들으며 음악의 특징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면서 음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에 어울리는 춤동작을 만들었다. 음악을 선정하고, 음악의 특징에 맞추어 논의를 할 때도 많은 변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음악이 바뀔 때는 동작이 바뀌어야 한다. 음악을 듣고 나고 동작을 하면 안되고, 뒤에 나오는 음악을 미리 알고 동작을 하여야 된다”

“외우자. 자, 하나, 둘, 셋, 넷씩 박자가 움직이지. 32를 세고 나면 다른 음악이 나와. 그때

새로운 동작으로 바꾸는 거야”

“음악의 셈여림과 공통되는 부분을 잘 표현하였다. 그 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잘 표현하였다 (분위기, 리듬 등)”

“포인트도 주고, 음악이 끊어지는 부분에서는 박수를 쳤다. 리듬, 음악, 춤동작이 잘 어우러졌다”

“리듬감도 뛰어나고 독특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지개 색깔의 의상을 같이 맞추어 입었다”

B학교의 경우,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음악 개념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발전을 볼 수 있었다. 우선, ‘같고/다르고’라는 개념을 음악에 도입하여 같고/다르고의 음악형식에 대한 과제를 세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 번째 과제 ‘음악이야기’에서는 단순히 학생들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음악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비슷하게 어떤 인물의 특징, 상황의 특징을 간단하게 음악으로 만들어 표현하였다. 두 번째 과제에는 같고/다르고의 형식을 만들어 기보하게 하였는데, 자신이 만든 곡이 어떤 소리가 나는가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나 창의적인 음악적 표현을 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두 가락악기를 활용하였으나 그 중 한 학생은 리듬악기를 사용하고, 곡에 셈여림을 넣어서 연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학생의 경우 선생님이 음악을 잘 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했는데 관찰을 해 본 결과 음악적 지능이 높은 학생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으며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 주었다.

마지막 과제에서는 ‘다양한 음원을 활용한 대조’라는 것을 하였는데, 드디어 학생들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발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창작을 하게 하였는데, 여러 가지 음악적 개념의 형성이 좀 더 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림과 소리에 대한 실험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림악보에서 악보 기보에 대한 전환으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 다양하게 선정하였는데, 처음에는 주제가 일반적(개구리, 아기돼지 삼형제 등) 것부터 시작하여 추상적인 것으로 발전하는 볼 수 있었다(‘취와 고양이의 여행’, ‘피에로의 실수’, ‘봄, 여름, 가을, 겨울’등). 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곡을 만들기 위하여 오랫동안 고심을 하여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음악적 표현을 그림으로 나타내며 처음에는 일반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음악 용어로 진술하였다. 연주실력이 점차로 향상되고 정확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곡을 연주하면서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모둠원들의 서로의 소리의 조화를 고려하여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학생들의 경우, 방학 후에 많은 발전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박자, 가락의 흐름, 악기와의 조화, 모듬원간의 협

동 등을 생각하며 음악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우 적극적으로 음악수업에 참여하였다.

“음악을 듣는데 기분 좋고 느낌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과 aba형식이 무엇인지 알았다. 음악에 대한 좋은 생각도 생기기도 음악이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도 알았다”

“박자, 음표공부를 해야겠다”

“음악의 끝부분을 만드는 것을 공부하고 싶다. 곡을 길게 만들고 싶다”

“악보를 그리는데 매우 힘들었다. 그래도 악기로 연주하려면 악보가 필요하다”

“내가 들어도 놀라웠어요. oo조는 우리 생활에 쓰이는 도구도 썼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음악도 아주 아름다웠어요. 우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더 좋은 음악이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신중히 생각해보고 창작을 하려고 해요”

위의 반응은 A학교의 마지막 과제인 ‘대조’라는 창작활동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음악을 창작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 것을 알았다. 베토벤이나 슈만도 음악을 만들었는데 정말 힘이 들었겠다”

“멜로디언 소리와 여러 악기 소리가 잘 어울려져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제목과 소리가 잘 맞다”

“박자가 잘 맞지 않았지만 소리가 좋다. 화음이 잘 맞고 복소리를 이용하여 협동을 잘 하였다”

“너무 짧게 대조부분이 나와 어색하다. abc형식 같다”

“대조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악기연주가 주제에 맞지 않았다”

“주제 표현이 잘 되었다. 그림 악보를 잘 그렸고, 악기를 바꾸고 멜로디를 바꾸어 대조를 잘 이루게 되었다”

“악보를 만드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음악적 기능

두 학교에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표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 두 학교 모두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음악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음악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연주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들으며 춤으로 표현하거나, 음악을 만들어 연주를 하면서 자신들의 음악적 표현에 대한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연구하며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A학교에서 발표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연주를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래발표를 잘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비디오 촬영을 보고 반성하기를 원하였다. 이를 보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보고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연주에 이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때에도 리허설 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였다. 한 모듬은 발표 후 자신들의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음악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훌륭한 춤으로 바꾸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악을 이해하여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B학교 학생들이 창작발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음악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같이 연주하는 과정에서 발표를 위한 리허설을 하였는데 다른 소리와 조화, 정확한 연주를 통한 음악 만들기, 연주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와 노력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창작과제에서 처음에는 학생들은 부드러운 곡이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연주가 끊어지지 않으며 잘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학생들은 연주를 하는 데에는 음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악을 잘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모듬으로 활동을 할 때에는 “다 같이 함께 음악을 맞추어서 연주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의 조화가 중요하다. 같이 열심히 연습을 하여야 한다” 등의 반응이 있었으며 함께 연주할 때의 연주 방법, 연주태도, 감상태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연습 과정에서도 점차적으로 집중하여 연습을 하며 연주를 잘 하고자 하였다.

“연습할 때 놀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 연습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친구의 연주를 들으니 너무 잘해서 소름이 끼쳐요”

“친구의 재미있는 연주를 듣고, 멋있고, 빠르고, 즐겁고, 경쾌하다”

“꼭 악기가 아니어도 재미있고 신기한 소리를 만들어 연주할 수 있다”

“내가 음악을 못해도 그만큼 노력을 하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해진다는 것을 연주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나도 혼자서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면 기분이 좋다”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연주하여서 그 만큼의 가치를 얻었다”

3) 음악에 대한 태도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흥미가 향상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주제 학습과 학생중심의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생각이 폭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만족감, 성취감을 보였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들을 때나 의견을 들을 때도 매우 진지하게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남을 인정하고 복돋워주는 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친구들의 음악사랑을 알게 되었다. 창작수업덕분에 리코더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들은 음악은 내가 죽어서도 못 잊을 만한 음악들이었다”

“노래를 들어보니 훌륭한 성악가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바로 꿈과 희망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노래는 잘 못하더라도 그 어린이들에게서 용기와 즐거움을 얻었다면 이번 음악회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음악수업덕분에 느끼는 것이 많이 있다. 재미있고 즐거웠다는 사실이다. 웃고 음악을 만드는 과정까지 너무 너무 재미있다”

“내가 음악을 지으니 꼭 내가 유명해진 것 같고 가수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 된 것 같다. 창피하기도 했지만 마음 속이 상쾌해진 것 같다”

“나도 이제부터는 음악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나의 상상을 뛰어 넘은 아이들을 꼭 따라 잡아야겠다. 피나는 노력으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지”

“차근차근 하니깐 쉽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 더 재미있었다. 어렸을 때는 음악이 지겹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음악이 좋아졌다. 감각도 좋아지고..더 배우고 싶다”

“이번 기회로 음악에 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지게 되었다. 음악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은 몰랐다”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다. 다른 모둠과 비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는 선생님이 주신 4학년 최고의 음악선물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재미도 없었고 하기도 싫었다. 하지만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다. 여러 악기도 알고, 그 악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알았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다”

2. 문제 해결력과 인지적인 전략의 발전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인지적인 전략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이 어떻게 음악적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어떠한 인지적인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를 볼 수 있었으며, 모둠원들의 지능별 특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음악과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학생들의 보유하고 음악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일지, 자기평가지, 상호평가지, 창작계획서 등에 작성하게 하였다.

자신들의 연습과정, 잘 못한 점, 잘 되는 점, 친구의 평가, 과제 수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전략을 세워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음악과 잘 안 맞는다”, “악기로 소리를 만든다” 등으로 기술하였으나 나중에는 “박자가 빠르고 음악이 경쾌한데 동작은 빠르고 경쾌하지 않았다”, “첫 부분을 큰북으로 2박에 한번씩 느리게 치고, 두 번째 부분은 캐스터네츠로 빠르게 쳐야겠다” 등으로 기술하였다.

A학교의 경우, 각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인지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음악수업을 하는데 있어 모든 수업을 모둠별로 하였는데, 모둠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였고, 그 전략은 모둠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었다. 모둠원들의 지능별 특징에 따라 어떤 모둠은 언어로 풀어가거나,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모둠. 음악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거나, 모둠의 융화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 중에는 잘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잘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활동만을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모둠원들에 대한 배려도 하게 되었고 모둠 활동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각각 개인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래의 특징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보자”

“각자 노래를 부르고 안 되는 점을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음악을 듣고 어떻게 하여야 크리스마스의 특징을 보일 수 있을 까 생각했어요. 포인트도 주고, 음악이 푹 끊어지는 부분에서는 박수도 쳤다. 리듬, 음악, 춤동작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제목에 너무 많이 바꾸고 춤이 생각나지 않아서 어려웠다. 그런데 선생님이 비디오를 보여 주었어요.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음악을 외어서 다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팀과 같은 음악인데 아주 다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저 모둠의 구성원의 특징에 잘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잡은 제목에 어울리는 소리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소리는 봄과 어울리지 않거든. 봄에는 새싹이 있으니 새싹이 나오는 소리를 만들어야지. 실로폰으로 높은 소리를 딱딱 끊어서 올라가면 어떨까”

어떤 학생은 이야기로 또는 그림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음악과의 연관성을 다른 과목과의 연관으로 생각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으로도 악보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림이 더 느낌을 잘 표현해 준다”, “그림으로 하는 악보가 더 재미있다”, “음악에 더 많이 사용된다”, “음악을 듣고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등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같은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개인적 차이에 따

라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음악적 개념을 음악으로 이해하는 아동이 있는 가하면 언어, 미술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이가 음악학습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으로 악보를 그리니 음악의 특징이 잘 나타나게 되었어요”

“가락선은 장난꾸러기. 가락선은 음악에 필요한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가 있어. 좋은 음악이 탄생했다. 가락선은 고마운 장난꾸러기”

“고운 길: 가을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가을에 고운 길처럼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하겠습니다. 높은 산과 낮은 시냇물처럼 높은 음, 낮은 음으로 하겠습니다”(그림으로 같이 보여주었음).

B학교의 경우, ‘감상을 활용한 이야기와 음악’, ‘aba형식’, ‘대조’라는 소주제로 활동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악기로 교사가 제시하는 갈고/다르고를 만드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스스로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한다는 관점보다는 수업시간에 어떤 한 과제를 끝낸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음악적인 이해가 없이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무엇을 음악으로 표현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음악 수업 덕분에 느끼는 게 많이 있다. 재미있고 즐거웠다는 사실이다. 웃고 음악을 만드는 과정까지 너무 너무 재미있다”

“비닐 봉지에 휴지마디에서 나중에는 컵까지 동원해서 보통소리도 여러 가지 소리와 어울려 너무 잘했다”

“주제에 너무 잘 맞게 음악을 만들었다. 소리를 높게, 낮게, 친구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주를 맞추어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대단했어요”

“우리가 만든 곡을 연주하는데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지휘자를 한명 골랐어요. 그 애가 손으로 움직이거나 눈으로 고개를 움직이며 언제 맞출 수 있는 지 알 수 있었어요”

음악 수업을 하면서 학습의 진행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학생들의 문제해결방법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A학교의 5학년에서 ‘작은 음악회’와 ‘음악과 춤’을 위하여 음악을 선정하여야 하는 과정에 있게 되었다. 모둠별로 논의를 하다가 전체 토의에서 이루어져야 하게 되었다. 전체토의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곡을 선정하는 것과 모듬을 정하는 것을 무엇을 먼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해결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곡을 먼저 선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해

서 즐겁게 부를 수 있어야만 성공적이고 능률적인 작은 음악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모듬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은 곡을 먼저 선정하면 좋아하는 특정한 곡에서 학생들이 몰릴 수 있으며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모듬이 정해져서 외톨이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듬을 먼저 나누고 그 모듬에서 토의하여 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음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음악적 분위기, 빠르기, 셈여림, 가락의 흐름, 박자, 서양음악과 국악 등을 생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체 논의를 바탕으로 각 모듬별로 음악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음악의 분위기를 보면 모듬의 성격이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성원의 지능별 특징에 따라 모듬원들의 상호작용으로 과제가 진행되고 발전되었다.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각 지능별 발달이 골고루 드러나며 발전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되는 수업보다 훨씬 능률적인 수업이 되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음악활동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 되었고 한 활동뿐 아니라 다른 음악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충분히 과정 중심적이었음을 학생들은 인식하게 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남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역할을 수정하고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잘 들어봐”, “내가 노래하는 것 맞나 봐”. “너네 소리 다 들려”, “내 목소리 들으니까 높은 부분을 해야겠지”, “이 모션보다는 재가 한 것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두 개의 악기를 어울리게 하려면 우리 둘이 어떻게 조정하여야 할까” 라는 등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발견하면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B학교의 경우, “대조” 주제의 창작 활동을 위한 ‘음악적 주제’를 정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또한 모듬활동을 정하는 데에서도 학생들의 문제해결 방법이 나타났다. 모듬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친구들로 구성할 것인지, 남녀로 나누어 할 것인지, 잘하는 학생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융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면 잘하는 아이끼리만 모일 수 도 있어요. 그러면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곡을 만들때는 마음이 같이 잘 통해야 하나까 친한 아이들끼리 하면 더 좋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교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학생들이 도전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철저히 교사가 협력자의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무엇이 어려운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많은 학생이 자아표현과 자아확신이 생겨나게 되었다.

교사가 “어려우면 다른 것을 바꾸면 어떨까?”라고 하였는데 학생들은 “아니요.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겠어요”라고 하였다. 한 학생은 “너무 어려워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중간에 도와주셔서 끝까지 할 수 있었고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교사가 만든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자신들과 친구들의 과제를 평가하였는데, 처음에는 이 기준에 맞추어 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반영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평가를 통한 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시각도 많은 발전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3. 협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 수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협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었다. 이 수업의 과제 수행은 모둠활동으로 공동작업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은 모둠원들간의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서로 돕는 협동심과 능력에 따라 우열을 가르는 것이 아닌 진정의 의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협력자가 되었다. 모둠 활동을 통하여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둠원 모두가 협력하여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식 몫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며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교사가 주려고 하는 것보다 학생들은 협동과정에서 친구들과의 활동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협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달았다. 협동을 잘해 주어서 너무 고맙고 기쁘고, 깨달은 점은 나 혼자만 생각해서 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에 또 하고싶다”

“아무리 혼자 생각을 잘 해도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여럿이 협동을 하면 멋지게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알맞은 춤동작이 생각나지 않을 때,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힘들었지만 연습할 때는 항상 즐거웠다.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겠다”

“우리가 해냈구나” : 남의 의견을 잘 지켜야겠다”

“처음에는 음악을 만든 다는 것이 어색하고 잘 못 만들었지만 오늘은 친구들도 좋아하는 음악이 되어 참 기쁘다”

“어려웠지만 너무 재미있다. 친구끼리 만나서 작곡을 하니깐 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을 해야하고 모두가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모둠으로 나누어 여러 번의 토의와 리허설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단점을 고치게 되었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남에 대한 배려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잘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못한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배려는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그 노래의 의미를 생각해야지. 썸여림. 박자. 화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조에 서 못 부른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줄여주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감싸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못 부르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섞여 아름다운 노래가 좀 엉망이 되어 아쉬웠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모둠원들이 논의를 할 때 자기 주장만을 내 세우기보다는 다른 모둠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친구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깨닫게 되었다. 모둠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과 친구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조정하는 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내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여야 하겠어요”

“저는요. 맨 처음 시작할 때도 다 같이 시작 안했구요. 가사를 저 혼자 불러주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나와서 너무 후회스러워요. 친구의 소리를 잘 들었어야 되는데”

“친구의 의견을 들으니 내 의견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작업을 하니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혼자 하면 힘들었을 텐데 같이 하니 멋진 것이 만들어졌어요”

4. 자아확신과 음악적 잠재력의 발견

여러 가지 지능이 통합된 수업일수록 모든 학생 자신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주제에 따라 음악적으로 뛰어나지만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신체적으로 잘 표현을 하나 음악적으로 표현력이 떨어지거나, 언어로는 잘 표현하는 데 음악적으로 떨어지는 개인차를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작은 음악회’에서는 음악적 능력이 높은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음악과 춤’에서는 의외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음악과 춤’에서는 신체적으로, 논리적인 지능이 높은 학생이 더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창작수업에서도 개인적인 아이보

다는 대인관계지능이 높고, 논리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들이 더 창의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수업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러 지능의 통합이 많은 것일수록 학생 자신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었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모둠원중에서 음악적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둠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다른 학생에게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발표를 통하여 음악적 이해를 하고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듣거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려운 과제를 하게 되더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음악을 못해도 그만큼 노력을 하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해진다는 것을 연주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음악을 듣는 게 기분이 좋고 느낌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과 ABA형식이 무엇인지 알았다.

음악에 대한 좋은 생각도 생기고 음악이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도 알았다”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습의 주체가 되며 음악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경험하게 되었다. 연주자, 지휘자, 작곡가, 비평가, 음악기획가등의 음악 전문가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자아표현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켜주었으며, 음악적 잠재능력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혼자서 작곡을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

“친구들을 보니 훌륭한 음악가 같았다. 친구들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 좋으련만”

“끝까지 하려는 의지가 강하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박자는 처음에 어색하였지만 나중에는 잘되었고 재미있었다”

“형식을 만들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음악만 듣고도 뭐가 생각이 나는 지 알 수 있는 우리 상상력이 대단하다”

“내가 음악을 지으니 꼭 내가 유명해진 것 같고 가수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 된 것 같다. 창피하기도 했지만 마음 속을 상쾌하진 것 같다”

“나도 이제부터는 음악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나의 상상을 뛰어 넘은 아이들을 꼭 따라 잡아야겠다. 피나는 노력으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지”

“차근차근 하니가 쉽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 더 재미있었다. 어렸을 때는 음악이 지겹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음악이 좋아졌다. 감각도 좋아지고, 더 배우고 싶다”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음악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은 몰랐다.”

5. 교사의 시각과 인식전환

본 연구에서 교사들의 다중지능이론을 반영한 음악과 수업을 수행하면서 음악수업에 대한 자기반성, 시각의 전환을 볼 수 있었다.

교사 자신의 교수(teaching)에 대한 반성을 하여 교사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학생의 학습과정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음악수업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실천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특히, 5학년을 담당한 교사는 처음부터 다중지능수업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진행하였으며, 수업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성취감을 보여주었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습을 진행하면서 좀 더 친근하게 실제적 과제를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왜 학생의 음악적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점차적으로 수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교사의 사전 전략이 있었어야 하는데, 오로지 목표는 뭐냐. 아이들이 지능이 어떻게 다른 가에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이들 지능의 특징을 내가 안다는 자만심이 있었어요. 맞아 대인지능이 높구나. 그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구나. 내가 특별히 애는 언어적 지능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낮게 나온 경우도 없었고 라고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쳤고 이것을 꼼꼼하게 어떤 지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주고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수업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반응이 계속 오고, 또 피드백을 주고, 오니까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죠. 나중에 점차적으로 방법적으로 알게 된 것이지요.”

“MI를 바탕으로 한 수업은 교사가 어떤 관점을 갖는 가에 따라 똑같은 수업을 해도 교사의 역할에 따라 전통주의 관점-즉 교사중심-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고, MI적 사고를 갖고 학생들의 이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사고만 해도 다른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수업이라도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가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님이 독단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고 그것을 논의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삶과의 학습 연계, 재미있는 학습, 통합적인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수업은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습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창작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과의 내 수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그동안 수업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 학생들의 창작에 대한 흥미와 노력, 아름다운 연주, 수업 태도 등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짐으로써 학생을 바로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학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 개개인에 따라 학습을 하는 방법이 다르고,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더 증가하였으며 학생들은 백지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수방법과 자료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000은 눈빛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000이 창작의 명수였고, 000이 음악을 느끼며 연주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000모듬도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추어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음악회”라는 주제를 선정할 때 반 아이들이 노래부르는 활동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회를 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애들이 음악회를 하겠다는 의욕이 있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우선 하는 것인데다 스스로 곡을 정하고 모듬짜고 연습하고 평가해주고 하면서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생기고.. 그런 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협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협동학습의 효과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더 증가하였으며 학생들은 백지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듬활동에서 대인관계지능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수업 중에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주고 받으면서 자기 의견만 내세우면 안되고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특히, 000모듬에서는 000이가(학교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인데 특수반에 가는 것을 꺼려함) 전

혀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까지도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아이들 모두 박수를 쳐주면서 좋아했거든요. 000한테도 큰 경험이고 기쁨이었던 같고 아이들과 000를 도와 이끌어내서 같이 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반 아이들의 발표를 하는 것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나름대로 박자에 맞추어 표현하고, 빼거덕 빼거덕 하면서도 마무리 연습을 하려고 전날 5시까지 남아서 연습하였던 모둠, 저희 반 아이들이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야말로 자기주도적인 수업을 하였더니, 무척 즐거워하면서도 적극 참여하고, 전반적인 수업태도도 좋아지고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많았던 한 학기 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재미있었고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 단순히 노래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얻는 소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과정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힘든 반면에 재미있었어요.”

V. 결 론

본 연구는 다중지능이론을 기초로 한 음악과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음악수업에 적용하여 다중지능이론의 학교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수업을 통하여 학생의 음악적 이해력, 음악적 기능, 음악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보여주었다.

둘째, 주제학습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과 인지적인 전략의 발전을 보여주었다. 과제 수행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으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주제에 접근하며 음악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증진을 보여 주었다.

셋째, 협동학습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증진되었다.

넷째, 학생 자신의 신뢰감과 자신감,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었다. 학생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유발시키고 학습의 주체가 되게 하였다.

다섯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수방법, 자료 및 기법을 더욱 확장하고 심화하여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섯째,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장점과 잠재력을 발견하여 학생 모두가 음악학습의 주체가 되어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새로운 학습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종문 외. 구성주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류완영, 김명희. “다중지능 이론과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연구 17집(2). 87-117쪽. 1999.
- 김명희, 김양분. “중등학생의 다중지능 분석”. 한양대 교육논총 12. 151-185쪽. 1996.
- 석문주 외. “음악과의 포트폴리오 평가”. 학습을 위한 수행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석문주. “초등학교에서의 음악학습을 위한 수행평가 개발과 실천 -포트폴리오 평가를 중심으로-”, 교과교육연구 4(1). 2000.
- 정태희.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교수 - 학습활동 개발 및 효과분석: 개인적 지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8.
- 조용환.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2000.
- Amstrong, T. Multiple Intelligences in the Classroom.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99.
- ASCD (1998). Multiple Intelligences: Topic Pack.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98.
- Boardman, E. Toward a Theory of Music Instruction: a Generative Approach to Music Learning. In press. 1996.
- Bergethon, B., Boardman, E. and Montgomery, J. (6th ed.). Musical Growth in the Elementary School. Orlando. FL: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97.
- Brooks, J. & Brooks, M. In Search of Understanding: The Case for Constructivist Classroom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93.
- Blythe, T. The Teaching for Understanding Guide. Somerset. NJ: Jossey-Bass Pub. 1997.
- Campbell, B. The Multiple Intelligences Handbook. Stanwood, WA: Campbell & Associates. 1994.
- Campbell, L., & Campbell, B. Multiple Intelligences and Student Achievement: Success Stories from Six School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 Development. 1999.
- Campbell, L., Campbell, B., & Dickinson, D.(2nd ed.).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Multiple Intelligence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1999.
- Delisle, R. How to Use Problem-Based Learning in the Classroom.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97.
- Denzin, N. & Lincoln, Y.(2nd 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 2000.
- Gardner, H. & Perkins, D. Art, Mind & Education.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9.
- Gardner, H. Frames of Mind. New York: Basic Books. 1983
- _____.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1993.
- _____. The disciplined mind: What All Students Should Understand. New York: Simon & Schuster. 1999.
- _____. Intelligence Reframed. New York: Basic Books. 2000.
- Hoerr, T. Becoming a Multiple Intelligences School.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2000.
- Newton, D. Teaching for Understanding: What It is and How to Do It. New York: Routledge Falmer. 2000.
- Nicholson-Nelson, K. Developing Students'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Scholastic. 1998.
- Teacher Created Materials (1999). The Best of Multiple Intelligences Activities. Westminster, CA: Teacher Created Materials Inc. 1999.
- Silver, H., Strong, R. & Perine, M. So Each May Learn: Integrating Learning Styles and Multiple Intelligence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2000.
- Wilson, S. The Role of Musical Intelligences in a Multiple Intelligences focused Central Florida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1999.
- Winner, E. (ed.). Arts Propel: An Introductory Handbook. Harvard Project Zero and Educational Testing Service: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92.
- Winner, E., Davidson, L. & Scripp, L. (1992). Arts Propel: A Handbook for Music. Harvard Project Zero and Educational Testing Service: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92.
- Wiske, M.(ed.). Teaching for Understanding: Linking Research with Practice. Somerset, NJ: Jossey-Bass Pub. 1997.

ABSTRACT

The application of Multiple Intelligence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music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Moonjoo Seog

This action research project examined the impact of using music curriculum based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at the elementary schools. The subjects were the fifth and fourth grade students in two elementary schools in Seoul, Korea. The subjects received multiple music program from a classroom teacher for 45 minutes twice per week from october, 2001 to february, 2002. The effects of multiple intelligence music program were analyzed through class observation, student's products, music lesson plans, student reaction, and teacher interview.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students were presented the development of musical understanding, music performance ability, musical attitude, problem solving ability, cooperative ability, and self-esteem.